

호매칼럼



류준식 시인·작사가

육이오 종소리가 잠잠해지면서 내가 사는 산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산줄기 따라 두어 가호씩 모여 사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이었다. 호젓한 산모퉁이를 우물구불 돌아가면 먼발치에 초등학교가 보인다.

다사료이 햇볕 내리는 조용한 오후였다. 공부를 마치고 나 홀로 터덕터덕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여자애들이 꺽꺽했다. 그리고는

“하낫, 풀, 하낫, 풀, 잘도 간다.” “하낫, 풀, 하낫, 풀, 잘도 간다.”

내 발걸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럴듯한 곡조까지 붙여 외쳐댄다. 제법 구성지다.

여학생 서넛이 작당을 하고 어느

틈에 살금살금 다가온 것이다. 잘도 걷던 내 발걸음이 이상해졌다.

나도 모르게 구멍에 맞아떨어지는 발걸음은 짝짝없이 그들의 노리개였다. 저들은 더욱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쳐댄다.

“하낫, 풀, 하낫, 풀, 잘도 간다.” “우리 준식이 잘도 간다.”

그들의 외침에서 벗어나려 애를 쓸수록 내 발걸음은 내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순간 얼떨결에 소리쳤다.

“아, 이놈의 계집애들아” 그리고 팔팔매질을 하였다.

‘걸음아 날 살려라.’ 계집애들은 줄행랑을 치고 나는 당당한 개신장 군처럼 가슴을 폈다.

존프기 머슴아이 가슴에 불씨를

그 계집애들

지킨 민자도 거기 끼어 있었다. 그는 엄청 예뻐다. 눈웃음과 살짝 패인 볼우물은 천하일품이었으니까.

요새도 가끔씩 내 가슴에 돌을 던져 밥잡을 설치게 하는데 그 계집애는 아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잔잔한 파도가 거꾸로 일렁인다. 어쩔 줄 몰라 더듬거렸던 내 어린 모습에 두 불이 화끈거린다. 뜨거운 그리움의 불기운이 화막화막 피어오른다.

이제는 남의 각시 되고 할미가 되어 알콩달콩 잘도 살겠지만 저도 그 때 일을 못 잊어 내 생각하면서 한 번쯤 웃어줬으면 좋겠다.

되돌아 갈 수 없는 그때가 눈물 나게 그림자.

망향

꿈이야 떠났거나 마음도 떠났을까 세월에 묻었거나 정마저 묻었을까 꿈같은 세월이 갔다. 내 늙음이 싫구나

그렸던 고향 하늘 청요람 고향 산천 물소리에 같은데 낮절은 먼편이다 애동무 어디들 가고 팔랑데 팔러매나

가래로도 못 막을 세월에 떠밀려 온 저나 나나 별 불일 없을 터인즉, 귀갓길에 단들이서 ‘하낫, 풀, 하낫, 풀’

그 장단에 맞춰 늦사리 발맞춤을 해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여름철 뱀물림사고, 대처법 속지



조남재 /담양소방서 119안전센터

구분 가능하다.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 모양이고 눈과 코 사이에 움푹 팬 구멍이 있다. 독 없는 뱀은 눈과 코 사이에 이런 구멍이 없고 미꾸라지나 장어같이 둥글둥글한 머리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사가 아니라도 일단은 뱀에 물리지 않는 것이 좋는데 그 이유는 세균감염이 발생하여 심하면 패혈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뱀에 물렸다면 119에 신고하고 뱀에 물렸던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뱀은 한번 물면 계속 물어 공격하려는 습성이 있기에 만약 혼자라면 그 장소를 벗어나고 근처에 사람이 있다면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한다.

뱀에 물렸을 때 뛰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독소가 몸에 빨리 퍼지기 때문에 뛰는 것은 금물이며 술을 먹거나 체운을 높여서는 안 된다.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서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끈이 있다면 물린 부위에서 5~10cm 위에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묶어야 한다.

독사의 독은 혈관이 아니라 림프관으로 이동하므로 지나칠 정도로 꼭 압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두어야 한다.

뱀에 물린 곳에 냉찜질은 동상 가능성이 있어 금지된다.

또한 물린 부위를 임의로 빠는 것도 독이 입을 통해 흡수될 가능성이 있고 2차 감염 위험성이 있어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뱀에 물린 직후 증상이 없어도 수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뱀에 물렸다면 반드시 119에 신고하여 가까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침착한 대처와 119 신고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벌쏘임 예방·긴급상황 시 행동요령



박지웅 /여주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 가운데 의외의 사항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말벌의 공격이다.

이번에는 말벌의 공격을 예방 그리고 긴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방법으로는 첫째 말벌은 꿀이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꽃향기가 나는 향수 사용을 지양하도록 한다.

둘째 말벌은 니트 소재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표면이 매끈한 옷에서는 벌의 흔적을 찾기 하지만? 니트 소재의 옷에는 벌침이 발견되는 일이 잦다.

이는 말벌이 거친 표면을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말벌은 검은색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번 여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완화되어 많은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는 날씨, 접근성 등 여러 가

최근 5월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독사의 일종인 ‘유혈목이’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소방대원들의 재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뱀물림 사고는 매년 4000건 정도 발생할 정도로 꽤 흔하다. 뱀물림 사고가 가장 잦은 달은 6월~9월로 야외 캠핑이나 등산, 추석 성묘 등 도중에 물리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도 독사가 서식한다. 대표적으로 살무사와 유혈목이 등이 있는데 독사에 물리면 독소가 온 몸으로 퍼져 신경계가 마비되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는 외관으로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il@naver.com

지국안내

- 총장.....223-4123
무등.....224-4188
동부.....234-4235
화동.....225-0651
광천.....374-2120
화정.....374-3713
금호.....376-7153
쌍촌.....371-9384

상무

-381-5310
서부.....651-0004
송암.....362-4102
농성.....362-4102
진월.....671-7276
봉선.....675-5530
중앙.....521-5640
중흥.....433-1503
양산.....574-3745
운암.....521-4270

오치

-261-9461
문흥.....261-9462
일곡.....573-3200
동운.....525-8994
두암.....266-1920
첨단.....971-1920
신창.....955-0451
월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 목포.....010-8718-1234
순천.....010-9656-1383
광양.....010-9656-1383
나주.....010-3644-7272
담양.....010-3602-3550
곡성.....010-2632-4504
구례.....010-8597-0053
보성.....010-3626-4776

- 화순.....010-2430-5055
영광.....010-9860-5489
완도.....010-5066-4708
장흥.....010-5665-8354
신안.....010-4217-9480
강진.....010-3775-2369
장성.....010-3610-7824
무안.....010-9271-8517

- 여수.....010-8587-2288
함평.....010-3095-5842
영암.....010-4604-3742
진도.....010-8525-4567
해남.....010-3471-6542
광산.....010-7613-4320